

제26호(2017. 1. 6.)

# 사회적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임송수 임지은



1.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 배경 .....	1
2. 사회적 농업의 현황과 특징 .....	4
3. 사회적 농업 관련 이론 .....	9
4. 사회적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	12
5. 요약 및 시사점 .....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최세균 KREI 연구경영 자문위원  
내용 문의 임송수 고려대학교 교수 02-3290-3033 songsooc@gmail.com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농업임. 사회적 보호시설의 일환으로 농장과 농가조직이 형성되며 사회적 농업이 등장하였고 많은 국가에서 현대적 개념의 사회적 농업이 성장 중임.
  - 사회적 농업은 공공의 건강, 교육과 훈련, 사회통합과 포용, 지역개발의 이익 창출 측면에서 기능함. 이 중 지역개발은 사회적 농업과 연관된 모든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효과로, 농업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음.
  -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업 서비스의 공급 주체와 관련 부문이 다양하게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별로 사회적 농업의 특징에 따라 상이한 지원 체계를 갖춤.
  -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가와 농업단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그중 하나임. 전체 사회적 기업 가운데 7%가 농업활동과 관련된 기업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함.
  
- 사회적 농업은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서비스 대상자 및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패러다임 전환의 혁신적인 수단으로서 농촌과 도시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함.
  - 농가는 소득 안정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도시민은 효과적이면서도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제도권 속에 사회적 농업을 포함시켜 지원하되, 장기적으로 농가와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구함.
  - 법체계를 갖추어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민간기업 및 복지, 교육, 보건의료기관과의 연대와 협업을 강화함.
  -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연계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관료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상향식 발전의 토대를 만들며, 연결망의 구축과 연구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함.
  
- 도시농업과 접목시켜 사회적 농업의 외연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에 특화함.
  - 농촌에 기반을 둔 사회적 농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되, 도시의 치매노인들이나 여타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이 필요함.
  - 도시 및 도시 근교의 텃밭, 농원, 농업공원, 정원, 학교, 산림 등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 측면과 소규모 맞춤형 생산 활동의 특화 측면에서 유리함.



#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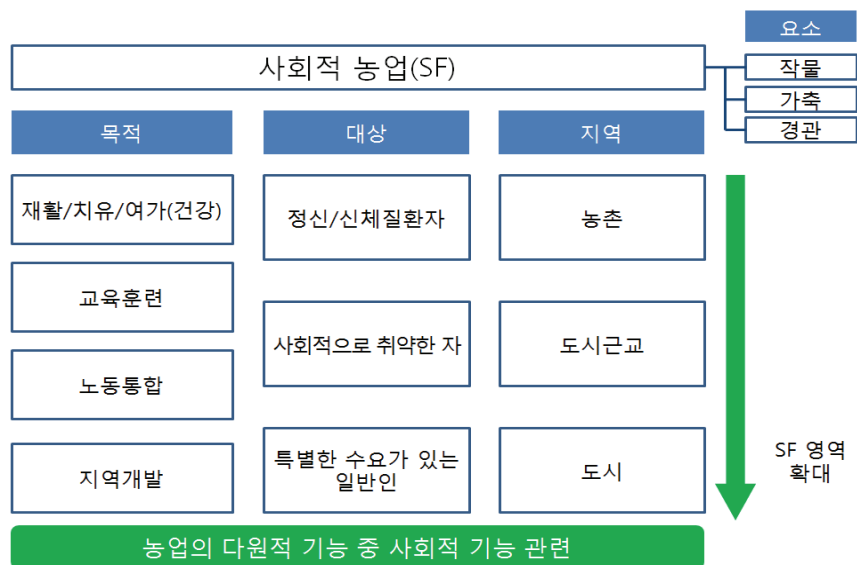
## 1.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 배경

### 1.1. 정의

□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SF)에 관한 공식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농업으로 규정

- 사회적 농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사회적 농업을 구성하는 공통된 요소는, ① 농장에서 하는 활동, ② 특별한 도움(건강, 재활, 사회통합, 교육, 고용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임(EESC 2012).
  - 사회적 농업은 ‘돌봄 농업(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영농(farming for health)’, ‘녹색 돌봄(green care)’ 등의 다른 개념과 종종 혼용됨.
- 이 글에서 사회적 농업은 농장에서 자연을 매개로 제공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치유, 사회적 재활,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

그림 1.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 범위



## 사회적 농업은 공공의 건강, 교육과 훈련, 사회통합과 포용, 지역개발의 이익 창출 기능을 수행

- 사회적 농업의 기본 틀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며, 이를 기반으로 ① 공공의 건강, ② 교육과 훈련, ③ 사회통합과 포용, ④ 지역개발의 이익 창출 기능 수행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영농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사회·환경 서비스를 말하며, 특히 사회·환경 서비스 대부분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그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공공재로서 사회에 공급됨.
  - 공공의 건강은 질병 치유와 건강 회복 등의 직접적인 혜택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예방 효과를 말하며, 영농활동을 매개로 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는 것임.
    - 사람들은 작물, 가축, 농촌경관 등과 교감함으로써 정신과 신체의 건강과 웰빙(well-being)을 얻으며, 성장을 경험하게 됨.
  - 교육과 훈련은 서비스 수혜자들이 영농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임. 이것은 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 정보의 획득, 훈련 등을 통해 얻어짐.
    - 수혜자가 특정한 직업 능력을 회복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잠재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함.
  - 사회통합과 포용은 경계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며, 식량 생산과 자연 체험을 통해 사회 연대를 촉진함으로써 이뤄짐.
    -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직업 적응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제공함.
  - 지역개발은 사회적 농업과 연계된 모든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효과로, 산업으로서 위축되고 있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임.
    - 농가는 농업생산을 지속하여 소득을 높이고 수지를 개선하며 농촌 경제개발에 기여함.
    - 서비스 수혜자의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농촌 활력(viability)을 촉진함.
    - 농가, 민간단체, 친환경 농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 간 사회적 연대는 풀뿌리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정규호 2007).

## 사회적 농업은 개념상 다양한 계획과 활동을 포괄하나 현재 법 규정·규범 미흡

### 1.2.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

#### □ 13세기에 병원과 수도원에는 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마당이나 정원이 마련되어 있었고 정신 치료를 위한 마을도 존재

- 2세기 초반부터 교회의 하부구조가 갖춰지면서 질환자들의 고통 완화에 초점을 맞춘 돌봄이 시작됨(Christian History Institute 2011).
- 중세 시대에 이른바 치료마을이 농업지역에 만들어졌으며, 이곳에서 정신장애인과 순례자들을 돌보기 시작함.
  - 벨기에의 농촌 마을 ‘길(Geel)’은 정신장애인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통합된 공동체 치유체제를 700년 이상 유지해 오고 있음(Goldstein and Godemont 2003).

#### □ 농장과 농가조직이 사회적 보호시설의 일환으로 형성되면서 근대적 형태의 사회적 농업이 등장하였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과 치유 기반의 돌봄 농업이 많은 국가에서 현대적인 개념의 사회적 농업으로 성장

- 교회나 초기 병원의 부속 정원으로 시작된 중세의 사회적 농업이 근대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은 1800년대 후반임. 독일에서 사회적 보호시설의 일환으로 농장 조직이 구축되면서 근대적 형태의 사회적 농업이 비롯됨.
- 1960년대에 주춤했던 사회적 농업은 1970년대 들어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이탈리아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네덜란드는 돌봄 농장 체제를 도입하였음.
- 1990년대 이후에는 영국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사회적 농업을 치유와 사회통합의 혁신적인 접근방법으로 채택하면서 사회적 농업이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

#### □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농업(social agriculture)이란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계획과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널리 활용

- 사회적 농업이 발전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만 법제화가 진행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관련 법 규정이나 규범이 미흡한 수준임.

# 유럽 각국의 사회적 농업은 관련 부문들과 다양하게 연계되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 2. 사회적 농업의 현황과 특징

### 2.1. 유럽

□ 사회적 농업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전부터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농업이 시작되어 발전하였으며 이들은 구조와 중점사업이 상이

- 이탈리아는 1970년대에 제도적으로 운용하던 시설들을 폐쇄하고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을 출범시켰으며, 2000년에는 벨기에의 한 농민단체(Boerenbond)가 농가와 서비스 사용자들을 소규모로 연계시키고 ‘돌봄 농업(care farming)’ 용어를 사용함.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인증받은 보호 작업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교육에 초점을 맞춘 접근방식(교육 중심의 농장)이 채택됨.
-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업은 1970년대부터 종교적인 공동체의 활동에 힘입어 발전하기 시작한 반면에 슬로베니아에서는 1990년대에 사회적 기업과 사회 및 돌봄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개별 농가,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 독일과 아일랜드 및 슬로베니아는 제도권 농가가 주류임. 유럽 각국의 사회적 농업은 서비스 공급 주체와 관련 부문 간 다양한 연계 아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
  - 건강과 관련하여 농업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공부문 또는 제3부문(third sector)이 주도함.
  - 네덜란드는 보건부문과 농업부문이 직접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정신질환자들인 서비스 사용자가 인증받은 사회적 농장을 서비스 공급자로 선택할 수 있음.
  -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노동부문이 농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중장기 실업자들의 노동통합을 촉진하고 있음.
  - 프랑스는 교육 목적의 사회적 농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목표그룹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학교 프로그램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음.



## 사회적 농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관련 규범과 조직이 갖춰지면서 사회적 농업을 대안적 사회체계로 인식

### □ 사회적 농업 참여 농가 수가 증가하고 규범과 조직이 갖춰지면서 대안적 사회체계로 자리매김하기 시작

- 2015년 8월에 이탈리아는 세계 최초로 사회적 농업을 국가의 법(National Law on Social Farming No. 141/2015)으로 승인함(FNAS 2016).
  -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총 2,000호에 이르며, 이 가운데 70%가량이 유기농가임(Lanfrnchi et al, 2015).
  -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공공식당에 대한 판매 알선, 국영 농지의 우선 사용권 부여, EU 공동농업정책(CAP)의 농촌개발프로그램(Regional Development Program: 2014-2020)을 통한 지원 등이 있음.
- 벨기에는 2005년을 기점으로 돌봄 농가의 등록제와 공공지원 체제를 도입하였고, 2017년부터는 장애인들의 개인 예산 형태로 공공보조가 지급됨에 따라 장애인 스스로 특화된 복지시설이나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예정임.
  - 등록 농가는 2015년 현재 580호를 기록하였으며 그 종류로는 복지부가 인정하는 농가, 비영리단체로 농민단체에 의해 설립된 지원센터(Steunpunt Groene Zorg)의 공식 연결망을 사용하는 농가, 전문적으로 영농활동에 대해 고등학생들을 자문하는 센터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 등이 있음(Steunpunt Groene Zorg VZW 2015).
  - 비등록 농가 수는 259호 수준으로 주로 은퇴농, 승마학교, 대규모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뢰인이 받는 서비스의 내용은 등록 농가의 경우와 비슷함.
  - 등록 농가는 2005년부터 농업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의뢰인 수와 관계없이 하루 최대 40유로를 지원받음.<sup>1)</sup>
- 노르웨이에서는 1990년대 들어 사회적 농업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 2011년 기준으로 1,100호의 농가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고 있음.
  -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에서도 교육과 연계된 활동이 특징인데, 간호사 또는 교사로 교육받은 농업인은 학교에 고용되어 농장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독일과 슬로베니아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특정 법 규정이 없이 지역개발 자금을 활용하여 농가를 지원하고 있음.

1) 복지부로부터 보조는 아직 없음.

## 영국은 자선기관, 네덜란드는 전문 농가 조직을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농업 지원체계를 구축

- 영국은 2003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자선기관(Care Farming UK)을 초석으로 농가와 관련 기관 사이에 연결망을 구축하며 녹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농가는 다양한 재원에 의해 지원되며 그 종류로는 자선기금, 건강기금, 지자체가 서비스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 사회적 기업 자금, 중앙정부의 재원 등이 있음(Hine et al. 2008).
  - 연결망 형성과 행동규약 개발로 인해 사회적 농업 서비스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법적인 뒷받침이 미흡하고 소규모 농가의 특성상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정부 기관과 연계가 여의치 않은 한계를 나타냄.
-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은 이미 1970년대부터 전문적인 농가가 나타날 정도로 발전했으며, 농가는 공인된 복지기관의 하부 계약자로서 지원되거나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 예산(PGB)을 통해 지원됨.
  - 농가들은 주로 돌봄 농업의 틀 속에서, ①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다각화한 전통적인 가족 농과, ② 처음부터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문농가로 구분됨.
  - 농가들은 돌봄의 품질에 관한 자체 브랜드(Kwaliteitswaarborg zorgboerderijen)를 가지고 있으며, 잘 발달된 전국 및 지역조직 아래 산업 간 협업을 추구함.
-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가들은 공공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상당히 비싼 공공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표 1. 유럽의 사회적 농가 형태별 숫자

국가/형태		민간	제도권	기타	소계	서비스 사용자 수
벨기에		258	38	12	308	2,000
프랑스	협회 주관 사회적 포용 농가/정원			400	400	
	교육 농가				1,200	
	치유 농가	200		300	500	
독일	치유 농가	12	150		162	
	학교 농가			58	58	
아일랜드		2	92	12	106	2,000
이탈리아	치유/포용/사회적 농가/정원	150	65	450	675	
	교도소		10		10	
네덜란드		746	83	10	839	10,000
슬로베니아		4	6	5	15	500
합 계		1,372	444	1,247	4,273	14,500

주: 2009년 이전 자료이며 이탈리아의 최근 사회적 농가 수는 2,000호로 파악됨(본문 참조).  
 자료: Di Iacovo and O'Connor(2009).

#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가운데 108개가 농업활동과 관련되며 서비스 목적은 대부분 노동통합이 중점

## 2.2. 한국

### □ 사회적 농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가와 농업단체가 부상 중

- 관광농업, 치유농업, 6차 산업화 등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사회적 농업은 상대적으로 생소한 개념임.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농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농업·농촌체험을 통한 휴양이나 정서함양 등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된 치유농업이 대세임.
  - ‘월예’나 ‘가축’을 매개로 한 치료라는 용어가 논문에 등장한 것은 각각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으로 파악됨(김경미 외 2015).
  - 경북 경산의 트랙 월예치료센터,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아토피 안심마을, 경북 영주시 아지동 국립녹색농업치유단지, 산림청의 치유의 숲과 치유단지 및 치유마을, 김천소년교도소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경기개발연구원 2013; 서정원 외 2012; 산림청 2013; 김강현 2015; 김형득 외 2014).
  - 치유농업의 대상으로 노인과 초등학교 및 성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실업자, 수감자, 중독자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냄(김경미 외 2013).

###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1,578개 기업 가운데 농업활동과 관련된 것은 108개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의 7% 수준<sup>2)</sup>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 업체는 2016년 6월 29일 기준으로 총 1,578개인데, 이 가운데 농산물 생산 등 영농활동과 직접 연관된 ‘협의’의 농기업은 34개이고,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과 관련된 ‘광의’의 농기업으로 확장할 경우 74개가 추가됨(표 2).<sup>3)4)5)</sup>
  - 사회적 농기업은 주식회사,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도 존재함.

2) 사회적 농기업의 분류는 인증된 단계이름, 사업내용, 서비스 수혜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임. 선행연구는 도농통합이나 군에 속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농수산업 및 유통 관련 업체 수는 2011년에 46개, 2015년에 118개로 제시됨(오내원·김창호 2011; 홍서연·김경희 2015).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임.

4)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에 기반을 둔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는 법인임.

5)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방식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는 법인임.

- 사회적 농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이 18개로 가장 많고, 경북이 12개, 강원과 충남 및 전북이 각각 11개를 기록함.

표 2. 사회적 농기업의 지역 분포

단위: 개, %

지역	전체	농기업		
		협의(a)	광의(b)	소계(a+b)
서울	267 (16.9)	0 (0.0)	2 (2.7)	2 (1.9)
부산	93 (5.9)	0 (0.0)	0 (0.0)	0 (0.0)
대구	59 (3.7)	1 (2.9)	0 (0.0)	1 (0.9)
인천	90 (5.7)	1 (2.9)	0 (0.0)	1 (0.9)
광주	78 (4.9)	0 (0.0)	1 (1.4)	1 (0.9)
대전	43 (2.7)	1 (2.9)	1 (1.4)	2 (1.9)
울산	54 (3.4)	0 (0.0)	0 (0.0)	0 (0.0)
세종	8 (0.5)	0 (0.0)	1 (1.4)	1 (0.9)
경기	256 (16.2)	6 (17.6)	3 (4.1)	9 (8.3)
강원	94 (6.0)	6 (17.6)	5 (6.8)	11 (10.2)
충북	73 (4.6)	1 (2.9)	8 (10.8)	9 (8.3)
충남	71 (4.5)	3 (8.8)	8 (10.8)	11 (10.2)
전북	99 (6.3)	3 (8.8)	8 (10.8)	11 (10.2)
전남	75 (4.8)	4 (11.8)	14 (18.9)	18 (16.7)
경북	101 (6.4)	3 (8.8)	9 (12.2)	12 (11.1)
경남	78 (4.9)	0 (0.0)	10 (13.5)	10 (9.3)
제주	39 (2.5)	5 (14.7)	4 (5.4)	9 (8.3)
합계	1,578 (100.0)	34 (100.0)	74 (100.0)	108 (100.0)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 사회적 농기업들의 서비스 목적은 노동통합이 중점

- 사회적 농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을 ① 치유, ② 사회포용과 연대에 중점을 둔 노동통합, ③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농촌 활력과 지역개발 등으로 분류할 경우 농기업의 대부분은 노동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사회적 농기업에 의한 서비스 대부분이 노동통합으로 분류된 이유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이며, 치유 목적만을 위한 농기업이 없는 것은 기업 활동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 노동통합과 치유를 결합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유일한 농기업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농산물 포장 작업장을 운영하는 곳임.

표 3. 서비스 목적에 따른 농기업의 분류

단위: 개, %

농기업 분류	치유	노동통합	지역개발	노동통합+치유	노동통합+지역개발	소계
협의(a)	0 (0.0)	24 (70.6)	2 (5.9)	0 (0.0)	8 (23.5)	34 (100.0)
광의(b)	0 (0.0)	56 (75.7)	8 (10.8)	1 (1.4)	9 (12.5)	74 (100.0)
합계(a+b)	0 (0.0)	80 (74.1)	10 (9.3)	1 (0.9)	17 (15.7)	108 (100.0)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 다층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농업은 지속가능 농업 환경이라는 기회공간에서 사회적 농가들이 주체가 되어 전통적 사회·기술체제를 새롭게 전환한 결과

## 3. 사회적 농업 관련 이론

### 3.1. 사회적 농업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

#### □ 다층적 관점(MLP)을 통해 사회적 농업에 의한 환경변화를 설명

- 전환이론(transition theory)의 핵심 개념인 다층적 관점(multi-level perspective) 아래 사회적 농업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음(Hassink et al. 2013).
- 다층적 관점은 ① 미시수준에서 틈새(niche), ② 중간수준에서 사회·기술체제(socio-technical regime), ③ 거시수준에서 사회·경제·물리적 환경(landscape) 등 그 활동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3개 수준으로 구성됨.
  - 틈새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부화 공간과 같은 곳으로, 경험을 통한 연구와 배움이 이뤄짐. 거시수준의 환경 변화와 주류 시장의 새로운 기조가 기존 체제에 압력을 행사할 때 틈새 혁신이 촉발됨.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적 변화와 창업가 정신에 영향을 받은 혁신가들에 의해 사회적 농업이 출발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농업부문과 보건복지부문 사이의 틈새를 공략한 것임(Buist 2016).
  - 사회·기술체제는 기존의 지배적인 제도와 하부구조에 내포되어 있는 혁신과 관련된 활동을 규율하는 힘으로, ① 규정, ② 사회적 연계망, ③ 인위적 가공물 및 하부구조 등의 요소로 구성됨. 정부가 사회적 농업을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새로운 조직들이 형성되었고, 농가와 이러한 조직 간 지식 교환을 위한 하부구조가 만들어짐. 관련 금융체제와 법체제도 갖춰지면서 많은 단체들이 사회적 농가와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게 됨.
  - 사회·기술적 환경은 역사적 사건에 따라 서서히 진화하는 사회추세임. 이것은 혁신 주체들이 교류할 수 있는 외부 구조나 틀을 형성하여 기존 체제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혁신의 기회를 창출하기도 함. 환경에 대한 관심, 식품안전, 동물복지, 사회참여에 관한 보건복지부문의 관심 등이 사회적 농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외부 환경으로 작동함.
- 전환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농업은 지속가능 농업이라는 환경이 제시한 기회 공간에서 사회적 농가들이 혁신 주체로서 효과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 사회·기술체제를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기술체제로 전환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창업가 정신이 사회적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이동이론은 사회적 농업으로 인한 사회체제 변화를 설명

### □ 창업가 정신 아래 사회적 농업은 혁신적 사고와 행동을 통해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

- 창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새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고 이행하기 위한 비전과 변화 및 창조의 능동적 과정으로, ① 개인, ② 조직, ③ 환경, ④ 과정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정부와 교육 및 체제 간 협업 연결망에 의해 지원됨.
- 창업가적 기술은 전통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이외 부문을 연계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연결망 구축, 새로운 조직의 개발과 기존 조직의 변화 및 관리, 새로운 개발전략의 수립과 추진, 다양한 서비스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 시행, 다양한 농업자원의 활용 등과 관련된 것을 다룸.
  - 사회적 농업은 개인 수준의 창업가 정신에서 시작하며, 조직적인 창업가 정신이 사회적 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됨.

### □ 사회이동이론은 혁신의 산출물인 사회적 농업 아래 사회체제가 변하게 된 것에 초점

- 사회이동이론(social movement theory)은 혁신 과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룸. 협업을 통해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전략을 만들려는 새로운 주체들의 과제와, 이러한 과제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Johnston 2011).<sup>6)</sup>
  - 사회이동은 사회변화와 재구성, 민감한 문제의 우선순위 설정, 법제화 등을 촉발하는 집단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임(Rao 2009).
  - 집단행동의 틀을 사회이동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공유된 신뢰체제로 본다면, 이러한 틀은 집단의 전략적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며, 새로운 산업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함.
- 20세기 말에 결성된 이상주의자 그룹인 ‘데 옴스라그(De Omslag, www.deomslag.nl)’는 사회이동의 일환으로서 초창기 사회적 농가의 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고, 당시 주류 농업과 돌봄에 비판적이었음.<sup>7)</sup>
  - 네덜란드에서 1999년에 창립된 지원센터는 사회적 농업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건강 돌봄 부문과 연대를 강화시켰음. 또한 사회적 농업의 정체성을 정상화와 사회화 같은 정책 목표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로서 부각시켰음.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지역 및 전국조직의 창설과 집단행동이 사회적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였음.

6) 집단행동은 집단에서 발생하는 행동으로 그 당시 상황의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함.

7) ‘데 옴스라그’는 취약계층의 사회포용과 참여를 추구하는 네덜란드의 비영리 연결망 조직임.

## 사회적 농업 활동은 농업에 대한 인식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서비스 대상자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3.2. 사회적 농업의 효과

#### □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

- 사회적 농업은 농업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사회 등 다른 부문과 연계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Di Iacovo and O'Connor 2009).
  - 이익집단의 수와 유형 확대, 젊은 세대와 사회 전반의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함. 농가는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하여 윤리적인 소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산을 촉진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 아래 창업가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음.
  - 삶의 질, 사회통합, 교육, 고용 및 치료 측면에서 서비스 사용자들의 혜택을 추구함. 농업, 사회 및 건강부문, 교육부문 등과 지속가능한 연계를 형성하고 농촌과 도시 간 관계를 강화함. 기회의 다각화를 통해 농가와 농촌지역의 경제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됨. 또한 농업 및 농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명성을 높이며,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사회 및 경관보호에 기여함.

#### □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농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서비스 대상자 및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Steigen et al, 2015)

- 서비스 참여자들은 여러 직무기술을 익히며 적응 능력을 얻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회적 농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참여자의 정신적 웰빙, 긍정적 자세, 자기 수용, 자기 성찰 등 정신 건강에 양(+의 효과를 발휘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켰음.
  - 활발한 신체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개선된 건강상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기분과 취침 유형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짐.
  - 일거리를 가짐으로써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삶의 새로운 기쁨을 얻도록 하며,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농산물을 실제로 산출하는 직업을 제공하여 노동의 존엄성을 갖게 함.
  -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관계망을 형성하여 결속력과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강화하며 더욱 활발한 사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이득을 얻음.
  - 자연이나 동물을 통해 보상과 지지를 경험하고 포용을 느끼게 됨. 동식물과 교감함으로써 내적 평안을 경험하고 확대된 자아의식을 얻으며 성장하게 됨.

## 한국은 전환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직면

### 4. 사회적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 4.1. 환경 변화와 필요조건

□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단체가 지역단위 노동자 협동조합 운동의 형태로 시작하였고 정부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과 맞물려 성장을 시작

- 사회적 기업은 처음에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협동조합 운동으로 추진되었고, 1997년 이후 실업과 빈곤에 대응하는 정부의 지원 아래 사회복지 단체들까지 포용하는 확대된 자활모형으로 성장함.
- 농촌지역에서 농업활동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이 출현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전문화 또는 체계화되지 못하였고 그 기능이나 특성 측면에서 사회적 농업이 유형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한국은 전환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직면

- 농업 안팎에서 조성되는 환경 변화는 농업, 농촌 및 사회문제를 밀접하게 접목시키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함. 농업을 둘러싼 위협 요인에 대한 한 가지 대응책으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 등 농업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촉구되고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농업을 둘러싼 외적 환경은 농업 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정책영역에서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고령화, 도시화, 자연환경 변화에서 비롯한 중증 질환, 치매, 성인병, 스트레스, 아토피 등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 깨끗한 환경,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수요와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주민, 노숙인, 실업자, 중독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포용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책비용이 늘고 있음.



## 창업자적 농가의 혁신적 활동과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회 요인 발굴 필요

-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농업이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필요조건은 창업자적 농가가 다양한 혁신 활동을 창출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여 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것
  - 창업자적 정신을 가지고 지역의 농업자원과 영농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가가 자생적으로 많이 나타나야 함.
    - 사회적 농업은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혁신으로서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점진적 발전 과정을 겪고, 그 활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궁극적으로 체제를 전환시키는 것이어야 함.
  -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농가들 간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연구와 교육 및 경험을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함.

### 4.2. 사회적 농업을 위한 과제와 전략

- 출발 단계에 선 사회적 농업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발굴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 발굴이 필요
  - 사회적 농업의 기회요인은, ① 지속가능한 소비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점, ② 경제 위기 속에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점, ③ 농업활동과 연계된 사회 서비스가 도시농업을 통해서도 창출되어 제공될 수 있다는 점 등임<그림 2 참조>.

그림 2. 사회적 농업의 SWOT

강점(strengths)	기회(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이 창출하는 다원적 기능</li> <li>· 친환경 농업 등 지속가능한 영농</li> <li>· 취약계층에 경제적 방식으로 사회 서비스 창출</li> <li>· 민간과 공공부문 간 연대를 통한 사회가치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의 증가로 지역의 인적 자원 확충</li> <li>· 융복합 산업화와 6차 산업의 촉진</li> <li>· 로컬푸드 등 지속가능한 소비 증대</li> <li>· 경제위기 속의 대안적 농업</li> <li>· 도시농업을 활용할 가능성</li> </ul>
약점(weaknes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의 고령화와 제한된 창업자적 혁신 농가</li> <li>· 농가와 서비스 수요자 간 지형적 격차</li> <li>· 표준화되지 않은 영농 구조와 활동</li> <li>· 정부지원에 지나치게 의존</li> <li>· 낮은 농업생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소득의 불확실성</li> <li>·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 결여</li> <li>·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인식</li> <li>· 법 규정 및 행정체계 미비</li> <li>· 기존 복지나 보건의료기관 등과 이해관계 상충</li> </ul>

## [SO 전략] 사회적 농업과 도시농업 연계 [ST 전략] 법체계를 갖추고 민간-공공 연결망 구축

### □ 강점-기회(SO)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적 농업과 도시농업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

- 사회적 농업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위치한 농가에 방문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임.
  - 이는 도시와 농업이 교류를 통해 그 연대를 강화하면서 지역개발 효과까지 강구할 수 있는 최상의 조치(first-best policy)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도시나 도시 주변의 농업 환경에서 이러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상의 조치(second-best policy)로서, 사회적 농업을 다양한 형태의 도시 농업과 접목시킬 수 있음(Di Iacovo and O'Connor 2009; Dessein et al. 2013).
  - 예를 들면, 노인복지센터를 도시농업과 연계시켜 도시의 치매노인들을 돌봄으로써 이들이 더 오래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돌봄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음.
  - 도시 근교의 텃밭이나 농원, 도심 속 정원, 빌딩 옥상이나 학교, 숲과 산림 등을 활용할 수 있음(김태곤 2014).
- 도시농업은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소규모 특성을 살려 서비스 사용자의 수요에 맞춘 활동에 특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들을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를 심도 있게 개선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정원을 좋아하면 이를 확대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재활기관과의 연대가 용이하며, 치료 사나 관리자 등의 접근도 용이함.

### □ 강점-위협(ST) 전략으로 사회적 농업의 법체계를 갖추으로써 민간과 공공부문 간 연대를 공고히 하고 그 연결망을 구축

- 법체계를 갖추으로써 사회적 서비스(다원적 농업)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복지 및 보건의료기관 간 잠재적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을 완화함(Hassink et al. 2014).
  - 사회적 농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기존 공공서비스의 대안 가운데 하나이므로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특히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WO 전략] 창의적 혁신 농업인 양성, 서비스 품질과 효과 인증 [WT 전략] 사회적 농업 인식 제고와 연구 개발 지원

- 복지나 고용 및 교육 관련 법에 사회적 농업을 반영함으로써 그 서비스 대상과 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하는 계획에도 포함시킬 수 있음.
  - 사회적 농업을 제도권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농가와 복지 및 보건의료기관 간 동반 관계를 강화할 수 있고, 전문 분야와 협력을 위해 관리체계(도, 지자체, 농업기술원, 연구기관, 대학, 중간 지원조직 등)를 구축할 수 있음.

### □ 약점-기회(WO) 전략 차원에서 귀농인력이나 젊은이들을 창의적 혁신 농업인으로 양성하고, 농가 서비스의 품질과 효과를 인증받게 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합법화를 추구

- 우수한 귀농인력이 사회적 농업을 통해 앞선 기술을 습득 및 보급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함.
  - 돌봄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학교의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함.
- 영농활동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효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커리큘럼을 개발, 보급하고 이를 인증하는 체계를 갖추으로써 사회적 농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이는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선결과제임.

### □ 약점-위협(WT) 전략으로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연구와 개발을 지원

-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생산 활동에 대한 일부 음(-)의 인식을 개선하려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 홍보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대중매체와 행사에 더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회적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함.
  - 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에 관한 통계를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투자해야 할 것임.

## 5. 요약 및 시사점

### □ 사회적 농업은 패러다임 전환의 혁신적인 수단으로서 농촌과 도시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

- 사회적 농업은 농촌과 도시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여 공공혜택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접근임(Foti et al. 2013).
- 농가는 소득 안정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도시민은 효과적으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특히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사회적 농업은 돌봄과 사회통합 서비스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 제도권 속에 사회적 농업을 포함시켜 지원하되, 장기적으로 농가와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구

- 법체계를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커리큘럼을 시행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나 건강보험과 연계한 지원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 및 복지, 교육, 보건의료기관 등과 연대와 협업을 강화함.
-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연계하는 장기 비전 아래, 상향식 과정을 거쳐 발전하는 사회적 농업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관료화를 최소화하고, 연결망 구축과 연구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함.

### □ 도시농업과 접목시켜 사회적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에 특화

- 농촌에 기반을 둔 사회적 농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되, 도시의 치매노인 등 다른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농업도 고려해야 함.
- 도시 및 도시 근교의 텃밭, 농원, 정원 및 농업공원, 학교, 산림 등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 측면과 소규모 맞춤형 생산 활동에 특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함.
- 도시농업의 부지를 확보하려면 공유지 중 유휴농지나 농업공원 및 공공텃밭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업이 필요함.

- Buist, Yvette. 2016. "Connect, Prioritise and Promote: A Comparative Research into the Development of Care Farming in Different Countries from the Transition Perspective." 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Center, Internship Report.
- Christian History Institute. 2011. "Timeline: Healthcare and Hospitals in the Mission of the Church." *Christian History Magazine* No. 101: 18–19.
- Dessein, J., Bock, B., and de Krom, M. 2013. "Investigating the Limits of Multifunctional Agriculture as the Dominant Frame for Green Care in Agriculture in Flanders and the Netherlands." *Journal of Rural Studies* 32: 50–59.
- Di Iacovo, F. and O'Connor, D. (Eds.).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Arsia(Agenzia Regionale per lo Sviluppo e l'Innovazione nel settore Agricolo-forestale), Firenze.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Social Farming: Green Care and Social and Health Policies." Brussels, 12 December 2012.
- Forum Nazionale Agricoltura Sociale. 2016. "Regional Seminar on Social Farming and Forestry." Presented at Walloo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June 23, 2016, Belgium.
- Foti, V., Scuderi, A. and Timpanaro, G. 2013. "Organic Social Agriculture: A Tool for Rural Development." *Quality-Access to Success*, 2013 Supplement: 266–271.
- Goldstein, J. and Godemont, M. 2003. "The Legend and Lessons of Geel, Belgium: A 1500-year-old Legend, A 21st-Century Model."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5(5): 441–458.
- Hassink, J., Grin, J., and Hulsink, W. 2013. "Multifunctional Agriculture Meets Health Care: Applying the Multi-Level Transition Sciences Perspective to Care Farming in the Netherlands." *Sociologia Ruralis* 53(2): 223–245.
- Hassink, J., Hulsink, W. and Grin, J. 2014. "Farming with Care: The Evolution of Care Farming in the Netherlands." *NJAS-Wageningen Journal of Life Sciences* 68: 1–11.
- Hine, R., Peacock, J. and Pretty, J. 2008. "Care Farming in the UK: Contexts, Benefits and Links with Therapeutic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rapeutic Communities* 29(3): 245–260.
- Johnston, Hank. 2011. *States and Social Movements*. Polity Press, Cambridge.
- Lanfranchi, M., Giannetto, C., Abbate, T. and Dimitrova, V. 2015. "Agriculture and the Social Farm: Expression of the Multifunctional Model of Agriculture as a Solution to the Economic Crisis in Rural Areas." *Bulgari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21(4): 711–718.
- Rao, Hayagreeva. 2009. *Market Rebels: How Activists Make or Break Radical Innov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Steigen, A., R. Kogstad, and J. Hummelvoll. 2015. "Green Care Services in the Nordic Countries: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DOI: 10.1080/13691457.2015.1082983.

## 참고문헌

- Steunpunt Groene Zorg VZW. 2015. Jaarverslagen 2015.  
<<http://www.groenezorg.be/NL/GroeneZorginbeeld/Publicaties>>.
- 경기개발연구원. 2013. “경기도 아토피 치유거점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 김강현. 2015. “치유농업의 사례와 시사점.” 『NH농협조사월보』 2015년 9월호: 41-53.
- 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이상미. 2013. “한국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4): 909-936.
- 김경미, 정순진, 이상미, 정성희, 최장전, 박동금, 송미혜. 2015. “치유농업을 통한 6차 산업화 비전과 과제.” 『치유농업과 농촌관광의 6차 산업화 국제심포지엄』. 강원대학교. 2015년 5월 27-28일.
- 김태곤. 2014. “농업의 치유기능과 도농상생.” 『도시농업의 치유기능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발표자료. 국회도서관 강당. 2014년 6월 9일.
- 김형득, 김경미, 이상미, 문지혜, 정순진. 2014. “상처를 어루만지는 농업.” 『RDA 인테러빙』 제118호.
- 산림청. 2013. “숲을 통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 산림복지종합계획.”
- 서정원, 김종호, 이연희. 2012.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산촌마을 이야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신서』 제57호.
- 오내원, 김창호. 201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640-3.
- 정규호. 2007. “풀뿌리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적 지역 만들기.” 『환경사회학연구 ECO』 11(1): 99-13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제10차 FANEA 심포지엄 자료.
- 홍서연, 김경희. 2015. “전통공예를 활용하는 사회적기업 사례 연구-나주 쪽염색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14(1): 69-97.

---

## KREI 현안분석 제26호

사회적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7. 1. 6.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mailto:admin@han-d.co.kr)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